

2014년 국회 8급 국어(다) 해설

제공 : 유두선 교수

1. ① 법석, 깎두기 ② 간간이, 틈틈이 ④ 깔쭉이 ⑤ 익숙지, 섭섭지

정답 ③

2. ① ‘여’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천여’는 붙여 쓴다.
② ‘만’이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 쓴다.
③ ‘은커녕’은 조사로 붙여 쓴다.
⑤ ‘데’는 ‘것에’의 의미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④

3. ① 전혀 ② 뜻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쓰는 줄 ③ 자옥한 ⑤ 비교하리오

정답 ④

4. ㄱ. 넓적해서 -> 널찍해서 ㄴ. 철썩같이 -> 철석같이 ㄷ. 웬일인디 -> 웬일인지

정답 ④

5. 제시된 글은 사건 전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① 1인칭 관찰자
② 3인칭 관찰자 ③ 3인칭 전지적 ④ 1인칭 관찰자

정답 ②

6. 싱가포르->싱가포르, 콘텐츠->콘텐츠, 카라멜->캐러멜, 난센스->난센스

정답 ②

7. ㉠ 은근(慇懃) ㉡ 유독(惟獨) ㉢ 적적(寂寂) ㉣ 늪름(凜凜)

정답 ⑤

8. 잘못된 과학과 참된 직관의 과학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정답 ③

9. 아등바등 -> 아등바등

정답 ③

10. (가) 걷기와 기차 이동의 차이점 제시

(다) 기차여행을 부정적으로 인식

즉 (가)와 (다)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②번밖에 답이 없다.

(나)와 (라)는 걷기 예찬에 관한 글이다.

정답 ②

11. 폭발[폭빨] 발이랑[반니랑] 반창고[반창고] 인기척[인끼척] 밟고[밟:꼬]

정답 ④

12. 장수는 목을 짧게, 미인은 어깨없이 흘러내리는 곡선. 파초와 눈은 사리에 맞지 않으나 정신의 풍격을 드러내기 위해 함께 그리고, 눈의 백태 처리나 터럭을 식견의 표현으로 그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변형한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①

13. ㉠ 풍자(諷刺) :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며 폭로하고 공격함
㉡ 혁신(革新) :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 사이비(似而非) :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정답 ②

14. 냉면은 후루룩 소리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다. 총각 김치와 오이 소박이도 청각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들어갈 내용은 소리와 관계가 있다.

정답 ④

15.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어난 오류

정답 ①

16. ① 봉집 -> 벗 ② 연심하다 -> 깊다 ③ 백의 -> 벼슬하지 않은 ④ 관원 -> 벼슬아치 ⑤ '상치되다'는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치다의 의미다. 여기서는 '부합(符合)되다'를 써야 한다.

정답 ⑤

17. ① 치렀으니 -> 치렀으니 ② 빌어 -> 빌려 ③ 주으면서 -> 주우면서 ⑤ 개인 -> 갂

정답 ④

18. <보기> 내용의 문자 발전 과정에 대해 쓰여 있다. 맨 앞에 '즉'을 볼 때 앞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라)의 끝부분도 같은 내용이다. 한정적 문자 체계가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 뒤에 보기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④

19. 자연 속에서 삶을 살겠다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자연 친화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④는 객관적 대상인 꽃을 예찬하는 시이다.

정답 ④

20. ① 소재 ③ 조전장문 ④ 회신 ⑤ 수수

정답 ②

21. 역사적 사실보다는 비현실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답 ③

22. 사그러들지 -> 사그라지지

정답 ④

23. ①~④는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⑤ ‘세 시간이나’의 의미로 씌였으며 ‘이나’는 주로 부사어 뒤에 쓰인다.

정답 ⑤

24. ①은 4단락에 ②는 1단락에 ④는 2단락에 ⑤는 2단락에 있다 3단락에서 ‘사람마다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③

25. 한자는 ⑤번이 바르게 표기한 것이다.

정답 ⑤

<총평>

25문제 중에서 문법 9문제 독해 8문제 문학 3문제 한자 5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독해와 한자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고 난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법도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문제 중심이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국회 8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야 할 것이다.